


<h1>보도자료</h1> <p>2022. 11. 21.</p>		<h2>양형위원회</h2>
	<p>문의</p>	<p>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31-920-5601)</p>

양형위원회, 2022. 11. 28.(월) 국제 콘퍼런스 개최

『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 』

(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 추진배경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11. 28.(월) 09:40, 대법원 401호 회의실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
- 이번 행사는 양형위원회가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행사로서, 세계 주요 국가의 양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형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열어, 양형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양형 관련 국제적 연구와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됨

■ 행사개요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개회사: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 축사: **김명수** 대법원장

- 영상축사: [Carlton W. Reeves](#)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위원장

[William Davis](#) 영국 양형위원회 위원장

- 기조연설: [천대엽](#) 대법관

○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Systems for Reasonable Sentencing Worldwide)-」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에서 양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형사사법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그 성과 및 과제를 논의

○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제1세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논의

- 제2세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 산업재해 등 법인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외국의 사법제도와 양형정책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토론

■ 생중계

- 전체 행사는 대법원 유튜브(www.youtube.com) 채널과 법원TV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

▣ **패널 소개**

-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사회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① **최승원** 고법판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양형기준 제도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of Implementing Sentencing Guidelines System)**」라는 제목으로 발표

※ 최승원 고법판사는 2021년부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음

- ② **Julian ROBERTS** 교수가 「**The Evolu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with a focus on England and Wales(영국을 중심으로 본 양형기준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줄리안 로버츠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 양형 아카데미(Sentencing Academy) 이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 양형위원회의 양형위원을 역임함. 미국법률가협회의 모범형법전(American Law Institute Model Penal Code) 중 양형 부분의 자문을 맡기도 함. 저서로는 Sentenc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J. Ryberg,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Paying for the Past (with R. Frase,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Core Issues in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th K. Ambos et al.) 등이 있음

- ③ **Matthew KLEIMAN** 부국장이 「**Data as the Lifeblood of Sentencing Commissions(양형위원회의 필수요소: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발표

※ 매튜 클레이만 부국장은 펜실베니아 양형위원회 부국장이자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범죄학과 연구 부교수이고, 현재 전미 양형위원회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음. 20년간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주법원

의 재판 및 사법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하였음

④ **타노이 쿠라토** 판사(일본 최고재판소 사무국 형사국원)가 「**The Recent Trends of the Sentencing Practices in Japan(일본 양형실무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⑤ **Johannes KASPAR** 교수가 「**Systems for Reasonable Sentencing Worldwide – Recent Trends in Germany(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 – 독일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요하네스 카스파 교수는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 교수로서 형사법, 형사소송법, 범죄학 및 형사제재학과 학과장(Chair for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al Law, Criminology and Criminal Sanctions)을 역임함. 2018년 제 72회 “독일 법률가 대회(Deutscher Juristentag)”에서 독일의 양형개혁을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함(발표주제: Sentencing Guidelines versus freies tatrichterliches Ermessen: Brauchen wir ein neues Strafzumessungsrecht?, 양형기준 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 지금 우리는 새로운 양형법이 필요한가?)

○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제1세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사회: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① **Jörg KINZIG** 교수가 「**Assessing the Risk of Recidivism in Germany(독일의 재범 위험성 판단)**」라는 제목으로 발표

※ 외르크 킨지히 교수는 2006년부터 튀빙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곳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 학과장을 역임했고,

2011년부터는 범죄학, 형법학, 형사제재법학 학과장 및 범죄학 연구소 (Institute of Criminology) 소장을 맡고 있음. 현재 독일범죄학회(German Criminological Society) 부회장임

② **Melissa HAMILTON** 교수가 「**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재범 위험성의 객관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

※ 멜리사 해밀턴 교수는 영국 서리 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사람 중심 인공지능을 위한 서리 연구소(Surrey Institute for People-Centred Artificial Intelligence)와 왕립 통계 학회(Royal Statistical Society)의 연구원이며,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위협평가전문가위원회 (Association of Threat Assessment Professionals), 텍사스주 변호사 협회의 회원임. 연구 관심사로 형사사법, 정책, 양형, 교정, 폭력행위의 가해와 피해에 대한 알고리즘 위험 평가 도구 사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등이 있으며, 법학 및 과학 분야에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음. 제5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서기)으로 근무하였고,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JD)와 범죄학 박사 학위를 받음

③ 이어 **권미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희**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장진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정토론을 함

- 제2세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사회: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① **Brandon GARRETT** 교수가 「**Lessons from Organizational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미국의 법인 범죄 양형이 주는 교훈)**」라는 제목으로 발표

※ 브랜든 개럿 교수는 듀크대 로스쿨 교수로서, 듀크대 과학과 정의를 위한 윌슨 센터(Wilson Center for Science and Justice)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연구 및 강의 관심분야는 형사소송, 잘못된 유죄 판결, 인신 보호 영장, 기업 범죄, 과학적 증거, 시민권, 헌법 등이 있으며, 6권의 책을 포함한 그의 저술은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 하급심법원, 주 대법원 등에서 인용되기도 함. 컬럼비아 로스쿨 졸업 후 제2순회 항소법원의 피에르 르발 판사의 로클럭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뉴욕의 Neufeld, Scheck & Brustin 로펌의 변호사로도 근무함. 국내 번역된 저서로는 2021. 5. 출간된 「오염된 재판(부제: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 신민영 역, 한겨레출판)」이 있음

- ② **김웅재** 교수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해석론(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South Korea: Doctrinal Analysis of Joint Penalty Provision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김웅재 교수는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 판사로 임관하여 2022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함. 2022년 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음

- ③ 이어 **권보원** 판사(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유근**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정토론을 함

2022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2022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entencing Commission

2022. 11. 28.(월)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양형의 합리화 방안 - 현황과 과제

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 프로그램

진행: 법선운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판사)

시간	프로그램	
09:00~09:40	등록 개회식	
09:40~09:55	개 회 사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축 사	김영수 대법원장
기념 촬영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		
제1세션 -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1)		
10:00~11:50	사 회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발 표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장원재판부 고법판사
		Julian ROBERTS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부 교수 Matthew KLEIMAN 전미 양형위원회의 협회 부회장, 펜실베이니아 양형위원회의 부국장
	토 론	Kurato TANOI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국원(판사) Johannes KASPAR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교수
12:00~13:10	공식오찬	
13:10~13:30	휴식	
제2세션 -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2)		
13:30~15:00	사 회	손철우 양형위원회의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발 표	Kurato TANOI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국원(판사) Johannes KASPAR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교수
		최승원 부산고등법원 장원재판부 고법판사
	토 론	Julian ROBERTS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부 교수 Matthew KLEIMAN 전미 양형위원회의 협회 부회장, 펜실베이니아 양형위원회의 부국장
15:05~15:15	기 조 연 설	천대엽 대법관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		
제1세션 - 제법의 위형성 판단의 객관화		
15:20~16:50	사 회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발 표	Jörg KINZIG 뉘빙겐대학교 교수 Melissa HAMILTON 서레이대학교 교수
		권미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토 론	김도희 광주지방법검찰청 검사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6:50~17:00	휴식	
제2세션 -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17:00~18:30	사 회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Brandon GARRETT 듀크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동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토 론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유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